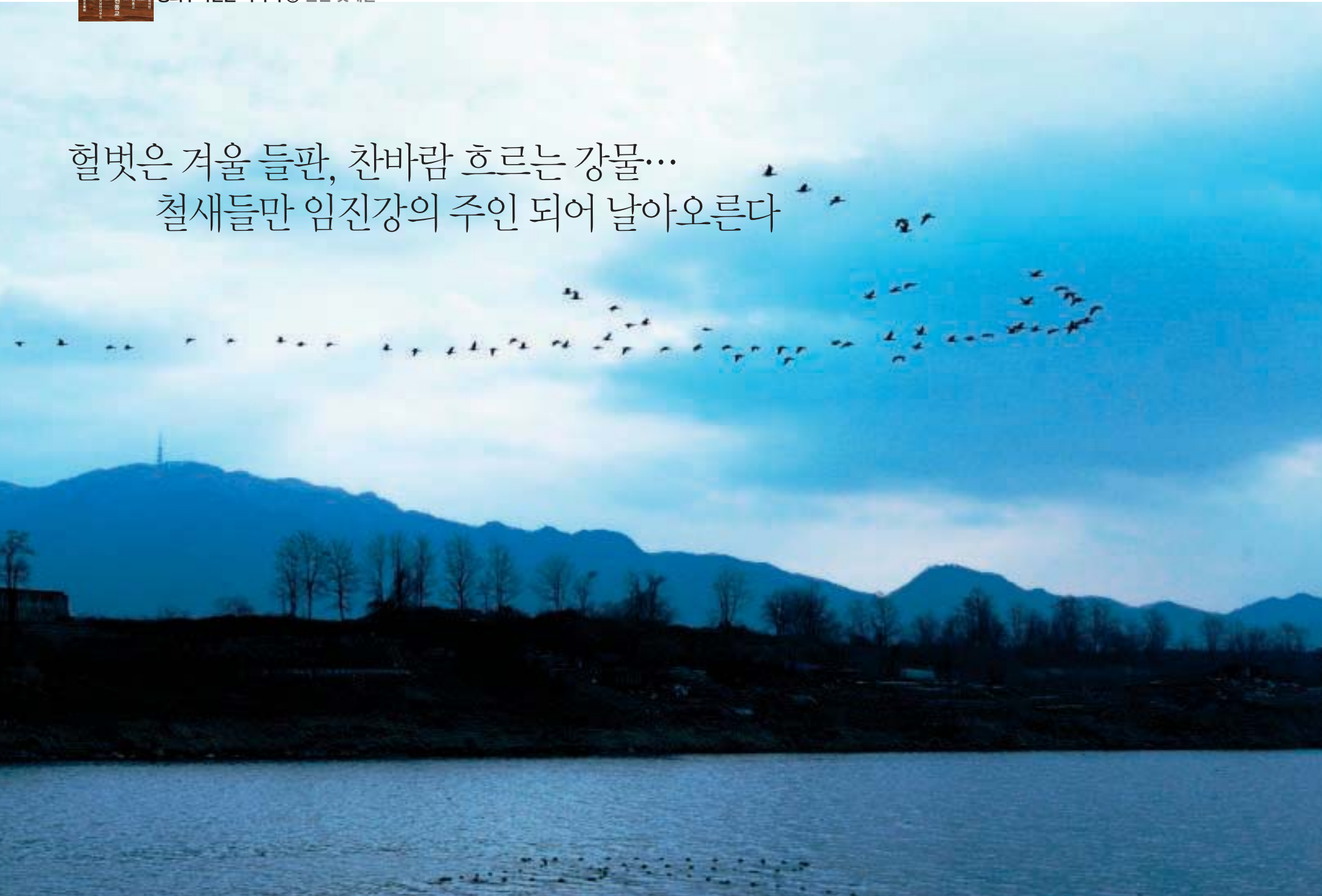


헐벗은 겨울 들판, 찬바람 흐르는 강물...
철새들만 임진강의 주인 되어 날아오른다



송의전

오 늘은 연천 평화누리길 첫째길로 황포돛배에서 연천군 장남면사무소를 거쳐 노곡리 비룡대교 입구를 지나 송의전에 이르는 짧지 않은 코스(황포돛배-장남면사무소-노곡리 비룡대교 입구-송의전, 21.5km, 6시간35분 소요)를 걸어야 한다. 황포돛배에서 두지사거리를 지나니 장남교가 나오고 다리 옆으로 임진강이 펼쳐진다. 검문소도 서 있다. 검문소 옆 천막 안에는 검문할 때 사용하는 거대한 철제 바리케이드가 보관돼 있다.

이정표를 찾는다고 두리번거리다보니 길 이름이 술이홀로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다. 다리 밑의 낚시꾼들을 구경하며 장남면사무소 쪽으로 나아간다. 서정 실버하우스, 어암사 팻말이 서 있고, 그 옆으로 트레킹 코스 팻말이 붙어 있다. 반갑다. 월당2리 마을회관을 지나고 목장의소도 구경하며 가다보니, 장남면 주민자치센터가 나온다.

‘로하스 연천’이라고 크게 써어 있는데, 그냥 ‘친환경 연천’이라 하지, 참 어렵다. 이 뜻을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며 전곡 쪽으로 돌아가니



장남교(왼쪽)와 사미천 들판.



임진강 지류의 지뢰 주의 표지(왼쪽)와 호로그루성.

송의전까지 19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온다. 그런데 코스 좌측으로 유서 깊은 호로그루성 이정표가 보인다. 호로그루성에 가보기로 한다.

고구려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호로그루성

호로그루성은 장남면 원당리 고랑포 북변에 위치해 있는 약 20m 높이의 삼각형 현무암 수직 절벽 위에 축조된 성으로 삼각형 강안평지성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의 성곽이다. 전체 둘레가 401m 정도로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로 보아 대략 4세기 말경에 축조된 것으로, 4세기 말부터 7세기 후반까지 250년 정도 고구려의 영역에 속해 있던 성이다.

용암이 흐르다 굳은 현무암층은 침식되기 쉬워 한탄강이 생겨나고, 임진강과 합쳐진 뒤에도 하류에 가까운 이곳까지 용암이 흘러와 높이 10~15m의 수직단애가 형성되어 임진강가에는 별도의 성벽을 구축하지 않아도 북진하는 적의 방어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진강으로 지류가 유입되는 곳에는 침식에 의해 이런 천연의 석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성을 만들어 적의 침입을 방어했다고 한다. 발아래 펼쳐진 고랑포구와 여울목을 바라보며 잠시 그 옛날 고구려 역사와 선조들의 삶을 생각해본다. 지금은 한가롭게 철새떼만 날아오르고 여울은 소리 없이 흐른다.

성을 나와 마을을 지나고 사미천교 방향으로 나아가니 들판 옆에 실버하우스가 보인다. 서정 실버하우스를 보며 우리 사회의 노년층 문제도 생각하며 그 옆의 인삼밭을 구경하며 걸어간다. 사미천교가 나타난다. 아스팔트길이 끝나고 사미천 제방 옆으로는 흙길이다. 역시 트레킹 코스는 흙길이 좋다.

여기에도 낚시하는 사람이 꽤 있다. 백학면 쪽으로 접어드니 송의전까지 15.2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비무장지대(DMZ) 생수 공장도 보인다. '개성 가는 길'이라는 식당 간판이 크게 서 있는데, 기분이 묘하다. 걸어가니 '송의전 12km' 이정표가 나온다.

임진강은 지류를 여럿 거느리고 있다. 석장천변의 갈대밭길을 따라 실강이 흐르고 있다. 석장천 다리를 건너 천변길을 걷기로 한다. 갈대밭과 소국, 마른 야생화 잎이 우수수 떨어지

며 길을 걷는 우리를 배웅해준다. 봄에 지난다면 너무나 행복할 길이다. 저 멀리 강변에는 철새들이 날아오르고 벌써부터 오락가락하는 햇빛과 구름은 서로 경주하듯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마침내 석장천이 끝나는 지점에 임진강과 만나는 합수지점이 나온다. 지천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은 넓은 삼각주를 이루고 있고, 그곳에는 역시 마을 사람들의 농사터인 밭고랑이 이어져 있다. 임진강물이 눈부시다. 강은 눈물겹도록 살아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로 60년간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눈부시게 살아 있다. 합수머리 지점을 나와 통구리에서 이정표가 없어 헤매다가 비룡대교까지 4km 남았다는 이정표를 발견하고 비룡대교 쪽으로 걸어 나간다. 노

호로그루성 여울목.



곡 배수펌프장도 보인다. 하늘에는 철새가 줄을 지어 장관을 이루며 날아간다. 임진강의 전경과 어우러져 눈물이 날 만큼 멋있다.

60년간 자연 그대로 보전된 눈부신 임진강

노곡리 새터 버스정류장이 나오고 그 옆으로 송의전까지 4.7km 남았다는 이정표가 서 있다.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곡사포 부대가 긴장을 자아낸다. 학곡리 적석층이 1.5km 남았다는 이정표를 보며 길을 재촉한다. 길을 가다보니 강변 쪽으로 갈대밭 가는 길 표지가 있어 그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니, 정말 멋있는 갈대밭길이 쭉 이어져 있다. 옆의 임진강과 갈대숲길 그리고 하늘에는 철새들이 줄지어 날아가고... 정말 멋진 길이다.

갈대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 걷다보니 송의전까지 4.7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반긴다. 거의 다 온 느낌이 든다. 학곡교를 지나고 왼쪽 승마장의 말도 구경하고 발아래로 펼쳐지는 임진강도 감상하며 걸어간다. 매운탕집이 하나 나오고 돌담들이 서 있다. 손님은 없다.

구미배수펌프장을 지나 능선을 오르니 새둥지마을 펜션이 나온다. 강쪽으로는 그물 작업에 한창인 어부가 보인다. 그대로 논둑길을 걸어 나가니 '송의전 2.4km' 팻말이 나타난다. 미산면이다. 전망대 이정표를 따라 숲속 오솔길로 접어들어 옆으로 흘러가는 임진강을 감상하며 걷다보니 송의전이 나타난다. 송의전 입구의 마르지 않는다는 샘, 어수정에서 시원한

석장천과 임진강의 합수지점.



고랑포나루

옛 문헌에 '고랑도' 라고도 기록돼 있는 이곳은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당시에 이르기까지 임진강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의 하나이며 고랑포 상권 형성에 큰 역할을 했던 곳이다. 서해안에서 조류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조기, 새우젓, 소금배들이 장단의 대표적 특산물인 콩, 팥감, 곡물을 중심으로 교역했고,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경기 북부지역 농특산물의 집하장 역할을 하던 곳이다. 또한 개성과 가까워 개성에서 쌀 물자를 서울 마포나루를 위시해 경기 북부지역의 농산물을 이곳 고랑포까지 배로 실어 교역했던 곳이다.




화신백화점이 있던 고랑포구.

개성으로 보내는 물자가 부러지는 규모가 큰 나루로 전쟁 전엔 경기도 장단군에 속했고 그 당시 화신백화점이 있었으며 문산 인구의 3배가 넘는 변화한 곳으로 장단군 사람들은 개성으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개성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고랑포로 놀러왔는데 1시간가량 걸렸다고 한다. 지금은 무성하게 우거진 갈대숲이 옛 나루의 명성을 대신하고 있다. 근처에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능이 있고 바로 코앞이 남방한계선이다.

약수를 한 바가지 마시고 어수정의 유래를 알아보니 태조가 자주 마신 샘물이라고 한다. 인근 주민들이 약수를 떠 가려고 줄을 지어 있다.

오늘의 목적지인 송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의 왕들(태조, 현종, 문종, 원종)을 모시던 묘전으로 송의전 전례는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의 구분상 중사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대 시조제의 하나로 왕이 친히 향과 축을 내리고 관리를 파견해 치제를 하게 한 국가의 중요한 행사였다고 한다.

송의전 앞 문화해설사의 집에 참고 자료들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비치해두고 있다. 집 옆에는 연천 찻재길의 끝을 알리는 이정표도 서 있다. 송의전 앞으로 흘러가는 임진강 본류를 쳐다보며 과연 명당자리구나 감탄하며 오늘의 트레킹을 마친다. 

글 · 사진 최영환(여행기고개)

교통 안내

- 경의선 문산역 → 환승버스 011번, 012번, 적성터미널 → 도보 이동(60분)
- 경원선 전곡역 → 전곡 구 터미널 환승버스 58-4번(원당2리 회관) → 도보 이동(20분)

〈자가용 이용 시〉

- 자유로 당동IC → 37번 국도 이용. 적성, 경순왕릉 입구에서 2분 소요
- ※ 내비게이션 : 적성면 두지리 216-5번지

